

불안

남편이 내일 3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잠을 못자고 뒤치락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불안해요?”

“응.”

“왜요?”

“돈을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이 불안해야지 왜 갚을 수 없는 당신이 불안해 해요? 편하게 자요”